

“마프진 위험하지 않아, 판매 금지가 더 위험”



올 여름에도 '일괄' 하계휴가... 계약업



政, 허특제 손질하나... 문제점 분석나



의사들 “응급실 폭행, 문제는 ‘공권

A Better Quality of Life
더욱 작아졌습니다

진화된 DPP-4 Inh. 슈가논! 더욱 작아진 슈가메트!

- 높은 DPP-4 선택성
- 신장 보호효과
- 15% VOLUME
- 17% DENSITY

ONCE DAILY

HOME 의로계

“마프진 위험하지 않아, 판매 금지가 더 위험”

네덜란드 의사 레베카 고퍼츠 “약물에 의한 안전한 인공유산’ 선택할 수 있어야”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승인 2018.07.06 00:01 댓글 0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낙태 시술 금지가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낙태 약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에서 재생산건강으로 간담회’에서 ‘Women on Waves, Women on Web’ 설립자인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누퍼츠는 ‘임신중절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여성들이 ‘약물에 의한 안전한 인공유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레베카 누퍼츠

누퍼츠는 “전 세계에서 해마다 5600만명이 임신중절을 하며, 전체 임신의 25%는 임신중절로 끝난다”며 “상당수 국가에서 임신중절은 합법화됐다. 네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모잠비크, 우루과이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중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상관없이 임신중지를 행하는 비율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임신중지가 불법인 국가에서 임신중지를 행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된 성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피임약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신중지 약물은 WHO에서 ‘필수 약물’로 지정돼있다”며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고, WHO 연구에 따르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위험부담이 임신중절수술에 비해 적다.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은 여성을 공포로 몰아넣고 고립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프진 사용에 대해 “(약 사용은) 출혈이 많은 월경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합병증은 매우 드물며, 여성 스스로 자연유산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약물적 유산을 할 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지 의사를 찾아 갈 수 있고, 자연 유산과 약물적 인공유산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방법은 거의 동일하다”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리스톨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은 모든 나라에 제공돼야하지만 미소프리스톨의 경우 한국은 등재가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누퍼츠에 따르면 약물적 유산의 경우 임신 12주까지 집에서 가능하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리스톨 두 약을 혼합 복용했을 시 성공률은 99%에 달하고 미소프리스톨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성공률은 94%다.



건강

내가 살찌는 건 미세먼지 탓?

대량을 피하게 되는 도시의 여름
여름철 비타민 D는
선팩타민

잇몸병과 전신질환의 연관

JEIL 제일약품
dexlansoprazole
덱실란트

Best Click

독자한마디

- 1 액상 진통제 매출 급증... 시장 재편 조짐
- 2 임신·연령제한 여성인기 화장품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전체기사

의료계

산업계

건강

오피니언

기고·연재



“마프진 위험하지 않아, 판매 금지가 더 위험”
